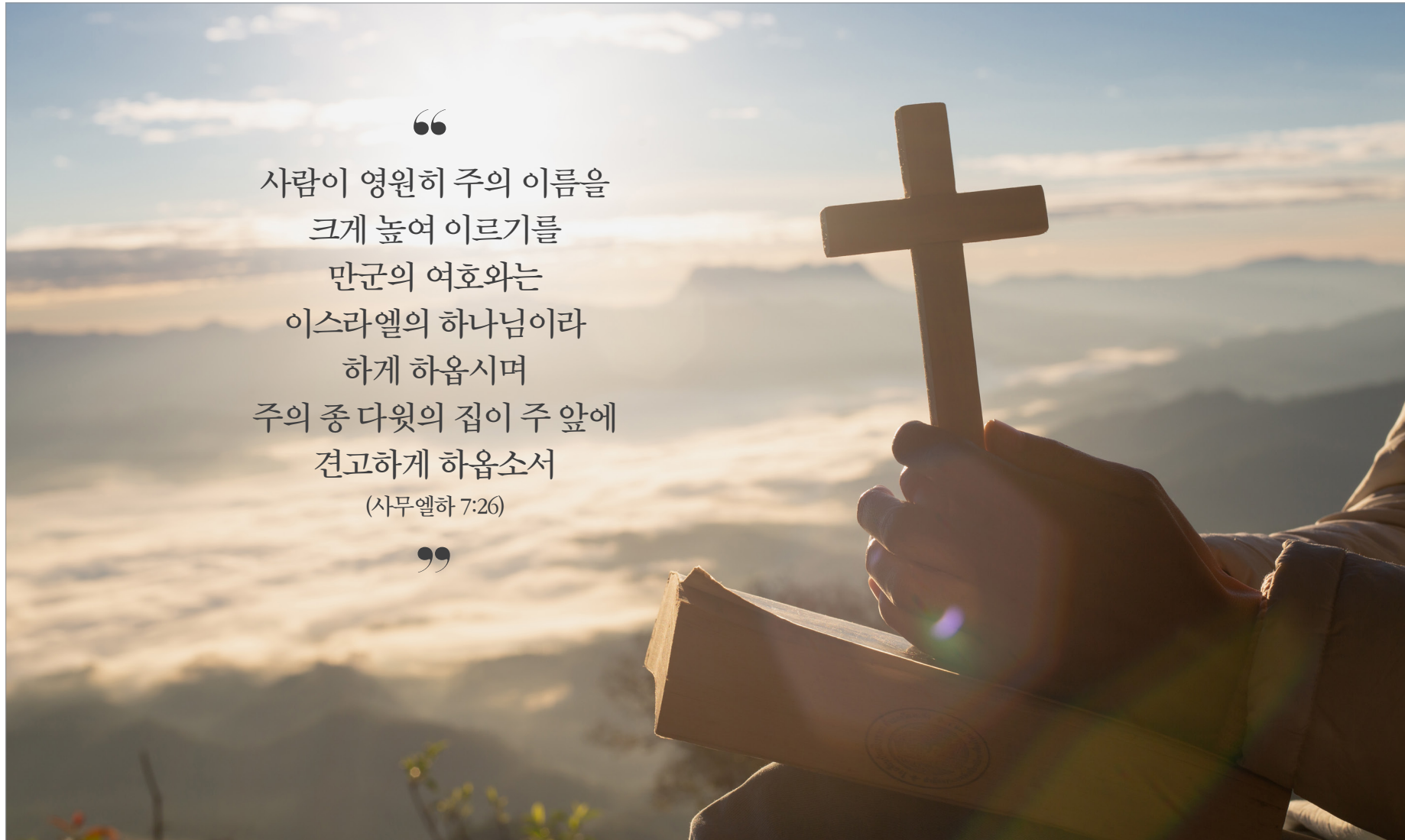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26)  
”

##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츠츠 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 EBC 개강

###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소망의 씩이 움트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경칩을 하루 앞둔 3월 5일(화) <2019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을 시작으로,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츠츠 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 EBC 영어성경공부 등 다양한 말씀공부 프로그램들이 개강한다. 봄이 되어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 기지개를 켜며 생명과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이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소망의 싹이 움트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미국 프랭크 와튼 박사로부터 시작되어 광림교회 한국목회연구원을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되었고, 1983년에 시작되어 현재 73차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성경공부 프

로그래이다. 이번 학기는 사무엘상·하를 함께 연구할 예정이며, 주제는 “견고하게 하소서”(삼하 7:26)이다. 3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사무엘상·하**는 세 명의 주요인물인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생애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왕들을 통해 위임되었는지 보여준다. 더 나아가 다윗 왕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사무엘상·하를 통해 무엇을 견고하게 하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며 신앙과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츠츠 라이프** : 주일 성경공부 프로그램인 츠츠 라이프는 3월 10일 개강한다. 양재민 목사 강의로 주일 오전 11시 본당 지하 1층 두란노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을 배우는데, 트리니티가 나무를 보는 성경공부라면, 츠츠라이프

는 숲을 보는 성경공부라 할 수 있다. 이번 학기는 구약 전체를 배우며 성경의 맥을 잡아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토대를 세워준다.

**어번던트 라이프** : 주제별 집중 연구 프로그램으로 역시 3월 10일 개강한다. 정용식 목사 강의로 주일 오전 11시 본당 지하 1층 양의문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며 그 역사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 헬라어로 복음을 의미하는 ‘유양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다. 복음전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3월 17일 개강하며, 6주간 매 주일 오후 2시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A에서 진행된다. 정준수 기획목사를 비롯해 양재민, 정용식 목사 등의 강의와 전도실습이 이어진다.

**EBC(English Bible Class)** : 이선우 권사(한국외대영어대학장 역임)의 강의로 사사기와 룯기를 NIV한영성경으로 공부한다. 강의는 3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주간 매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의 문에서 진행된다. 3월 10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등록을 받는다. (등록비 2만원 / 문의 : 이기식 장로 010-3577-5011)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지혜와 판단력이 탁월하게 되며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 주일설교는 여러 기독교방송에서 방영하는 <광림의 시간>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CTS기독교TV** : 매 주일 11:00~12:30(생방송), 수요일 19:30~20:30

**CBS기독교방송** : 매 주일 08:00~08:50, 수요일 07:30~08:20

**GoodTV기독교복음방송** : 매 주일 10:00~10:50, 금요일 18:40~19:10

**FEBC기독교방송 [FM 106.9MHZ / AM 1188KHZ]** : 매 주일 10:00~10:30

**C channel** : 매 주 토요일 05:30~06:30, 주일 04:00~05:00

번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믿음의 배에 승선하여 거친 파도를 넘어서라

시련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35~41)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저녁이 되어 어두컴컴해지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호수를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은 갈릴리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가자고 하셨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풍랑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마가복음 4:35~41

35.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시니 39.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이렇게 경거망동하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목소리를 낮추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서 “들리지 말라”는 것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을 말합니다. 낮추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 목소리를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 셋째,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넘어서라!

본문 38절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며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났습니까?”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문제와 시련 앞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 항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며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2056-5730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

않으시나이까”라며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시자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그동안 이 호수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풍랑 앞에서 아무 쓸모없게 되자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제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름 지식과 경험, 지혜가 있어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처럼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생의 항해를 복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 첫째,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 앞에서 먼저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풍랑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이 가운데 이들이 한 가지 잊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님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그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시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38절) 제자들은 풍랑 속

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런 일에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큰일을 하시니까 난 절대 죽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에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 둘째, 주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37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 들리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호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풍랑 앞에서 저들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유한함과 나약함만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만만했지만, 폭풍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핑계만 대며 자신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따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 여선교회 후원, <칼리닌그라드 새 성전 봉헌예배>

모스크바에서 약 1,600km 떨어진 발트해 연안 도시, 고려인들 이주해 정착한 곳



**15명이 전부였던 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했고 2018년에는 성인 약 60명, 어린이 약 4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 '칼리닌그라드' 모스크바에서 약 1,600Km 떨어진 발트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라는 도시는 러시아 본토와 국경이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으로 한때는 독일의 영토였지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러시아의 땅이 되었습니다.

1937년 소련에 의해 시행된 소수민족 강제이주의 역사 가운데, 극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졌고, 소련의 붕괴 후에도 대부분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던 곳은 아니지만, 발트해 지역 국가들이 소련으로

부터 독립하며 이곳에 있던 많은 러시아인들이 칼리닌그라드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고려인들도 이주했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인간의 사상이 충돌했던 이곳에 15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했고, 이 소식이 우리 광림교회에 알려지며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와 재정 후원을 통해 2010년 10월 3일 칼리닌그라드 광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5명이 전부였던 교회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했고 2018년에는 성인 약 60명, 어린이 약 4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전이 좁아 추운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는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 번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비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리닌그라드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박관순 사모님과 광림교회 여선교회 임원들의 헌신으로 기존 성전보다 큰 새 성전을 봉헌하게 되

었고, 기존 성전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월 14일에는 김정석 담임목사님과 여선교회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칼리닌그라드 광림교회 새 성전 봉헌예배>를 드렸고, 고려인 성도들과 러시아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선포해주셨고, 러시아 감리교회의 에드워드 허 감독님은 <칼리닌그라드 광림교회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며 광림교회와 여선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스크바 광림미션센터 중심지로 러시아에 현재 5개의 교회 및 미션센터를 건축했으며, 앞으로 러시아 감리교회와 협력하며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방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상 목사(모스크바 광림교회)

## 광림교회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는 남선교회가 되자!

2월 10일 주일 <남선교회 총연합회 신년예배 및 월례회>개최



2019년 한 해 동안 남선교회 총연합회의 직분 받은 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신년예배 및 월례회>가 2월 10일(주일) 낮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남선교회총연합회 임원을 비롯하여 각 선교구 연합회장 및 개체선교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광림남교회를 비롯하여 광림서교회와 지난해 8월 봉헌예배를 드린 광림북교회 임원들도 동참하였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교회 지도자의 덕목(고후10:1~13)'이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첫째, 온유와 관용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했다. 이

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화내지 말며 오래 참으라는 뜻이다. 둘째, 권세있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권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자신보다 남을 세우는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분수 이상의 사랑을 하지 말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다함께 협력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 같이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잘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년을 결산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곳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다. 우수선교회연합회는 7, 8, 9, 11선교구, 우수교

구는 14, 16, 27교구, 우수선교회는 1바울, 4웨슬레, 7웨슬레, 12-1웨슬레, 14스테반, 18디모데, 20스테반, 22스테반, 25웨슬레, 30디모데, 31웨슬레, 51-1바울, 54바울선교회가 각각 선정되었다.

올 한해 남선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할 운영위원, 본부임원, 선교구연합회장, 교구회장 등의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으며, 특별히 스테반선교회가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된 '스테반선교회 멘토'에 대한 임명장도 함께 수여되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광림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오는 4월 12일 몽골 어르비트 선교센터 기공식을 갖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며 남선교회총연합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남선교회총연합회장 박기연 장로는 새해 펼쳐나갈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 방침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포토 뉴스



장로안수식

2월 17일 주일 제39회 강남지방회에서 장로안수식이 있었다.



은퇴장로감사예배

2월 17일 주일 제39회 강남지방회에서 은퇴장로감사예배를 드렸다.



방송문화위원회 근속상 시상

2월 17일 주일 방송문화위원회 근속상 시상이 있었다. (30년 안병태 집사, 25년 김태성 권사, 20년 문선기 권사, 김상일 집사)

### 담임목사 동정



- 2/11 CTS 직원예배
- 2/11~15 모스크바 광림교회 수요일예배
- 2/11~15 칼리닌그라드 광림교회 봉헌예배
- 2/16 남선교회 운영위원회
- 2/17 제39회 강남지방회
- 2/23 월간회의

### 감독 동정



- 2/10 광림남교회 주일예배
- 2/17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등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에게만 충실한 삶이었다.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골마을에서 자랐다. 아주 산골이었지만 교회가 있었고, 성탄절에 행사를 많이 해서 쉽게 교회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소도시로 이사 온 후에는 다니질 못했다. 환경이 시골과는 많이 달랐다. 그런 나에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아주 우연한 시기에 주님이 찾아 왔다. 기숙학교였던 고등학교는 교회가 따로 없어 도서관 옆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 2학년 어느 날, 수요일 저녁예배가 열렸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들은 통성기도 소리! 그리고 잔뜩 겁먹고 놀란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대학시절, 군대 생활에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나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를 다녔다. 장교로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 물론 대학 때는 교회에서 찬양단, 성가대, 대학부 등에서 봉사도 했지만, 결혼 후 약 10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회를 하였고, 아내의 권유로 우연찮게 새벽예배를 나가게 되었다. 그 새벽에 조용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신선한 감동이 마침 진급과 더불어 고급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교육을 받던 곳에서의 환경과 어우러졌다.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이다.

군사교육과정 1년이란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성경공부(TEE 성경)와 신우회(기독교 병사 모임) 교사로 단련케 하셨다. 이런 단련이 군 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였다.

지금은 25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직장인으로 인도하셨다. 말씀을 통해 술도 끊게 하시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버스에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오직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인도해 달라고 말이다. 이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준환 권사(남성성가단)

생생 속회 (34회) 10교구 13지구 속회

응답의 축복, 뜨거운 찬양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속회



가족처럼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의 속원들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하남시 미사강변지구에는 3대가 함께, 부부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속회가 있다. 10교구 13지구 속회는 새해가 시작되면 각 가정의 중보기도 제목을 모아 기도문을 제작한다. 그리고 속회 때 모든 속원들이 함께 기도문으로 중보기도를 한다. 그럴 때 속원들의 관심과 신뢰가 배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 간증과 사랑이 넘쳐나는 속회가 된다. 찬양사역자인 조태영 권사는 언제나 기타 반주로 찬양을 인도한다. 예배 전 찬양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속원들의 요청으로 특송을 해주는 등 즐거움이 넘친다. 지구장으로 수고 하다가 소천한 故 박세광 권사 1주기를 맞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온 속원들이 함께 속회 겸 추도예배를 드렸을 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투병 중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모든 속원들이 애타게 기도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한편 이주철 집사, 김신애 집사의 딸 4살 지아가 항상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므로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신천장로이자 남성성가단 대장 김일환 장로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정체성을 갖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합니다. 마치 연인들과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의 삶을 돕고 있으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속회를 통해 몰랐던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해 알고 간증을 나눔으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사렛성가대 총무 조태영 권사는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므로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 속원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듯이 속원들은 그런 마음자세로 찬양을 사모하고 영적

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다섯 살 어린아이와 스테판 젊은 부부가 함께하는 세대를 아우르는 속회라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속회가 기다려지는 모임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김명호 권사는 "손주 윤우(4살)와 같이 속회 드린지 9개월이 됩니다. 또래 지아랑 같이 즐거워하고 성도들도 즐거워해서 신앙을 자연스레 보여주기 위해 데려옵니다. 무엇보다 속원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입니다. 속회 드리기 위해 미리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니 이 또한 유익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니 서로에게 권면해서 생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에게 속회는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활력있게 은혜롭게 보내도록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기도제목이 많고 하니깐 속회는 당연한 거지요."

이곳은 응답의 축복이 넘친다. 정금자 집사의 딸 지연 양이 로스쿨에 합격하고 졸업하여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김일환 장로는 기도한 내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부를 맞이하였다. 강용희 권사는 딸의 결혼과 아들의 취업 성공을, 송계영 집사도 아들의 취업과 유병두 집사의 장남 의전 합격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렸다.

속원들은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 스테반교회 젊은 부부 세 가정들을 위해 지속적인 권면과 기도를 쌓고 있으며, 부진자들을 품고 중보기도로 속회예배를 독려하고 있다.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아름다운 임종은 유가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위로

<제26차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3월 12월~4월 9일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몹시 당황했어요." 김미은 권사(27교구)의 아주 건강하시던 80세 친정어머니는 2년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 "광림호스피스 선교회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천국으로 가셨고, 남아있는 저희 5남매에게는 헤어지는 슬픔이 너무 컸지만 천국 가신 어머니의 아름다운 임종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다"며 "광림호스피스 선교회의 도움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김 권사는 그 때를 회상했다. 갑자기 죽음 앞에 맞서게 될 때 우리 앞에 엄습하는 두려움은 우리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주변에 늘어가고 있는 말기환우들에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른다.

<제26차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이 광림호스피스선교회 주관으로 3월 12일(화)부터 4월 9일(화)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광림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된다. 수준 높은 전문 강사들이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새로운 인생관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 교육만 원하시는 분, 암 환자 임종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 그리고 광림교인이나 타교인,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적극 환영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 단 2회 이상 결석 시 수료가 불가하며,

등록비는 교재비 포함하여 3만원이다.

문의: 이해림 권사 010-2353-2409

한경희 권사 010-7195-7640

이정순 기자 lillypink60@hanmail.net

[제26차 광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일정]

Table with columns: 날짜, 시간, 강의내용, 강사.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hospice education program from March 12th to April 9th.

# <2019 교사비전캠프> '교사, 열정을 품다'

교회학교 교사들, 맡겨진 영혼 품고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자 세우는 헌신 다짐



**“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리이다. 거룩한 안타까움으로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다.”**

광림교회학교는 지난 2월 8일(금)~9일(토) 1박 2일 동안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교사비전캠프>를 열었다. '교사, 열정을 품다'라는 주제(행 8:5~7)로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며 하나님 앞에 헌

신할 것을 다짐했다. 열정으로 하나 된 180명의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세미나하우스 채플실을 가득 메웠고 이혁진, 이민경 간사의 찬양인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 문을 열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기도한 교사, 가족과 함께한 교사 등 각양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비전캠프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교사'(느 1:1~5)라는 제목으로 정준수 기획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리이다. 거룩한 안타까움으로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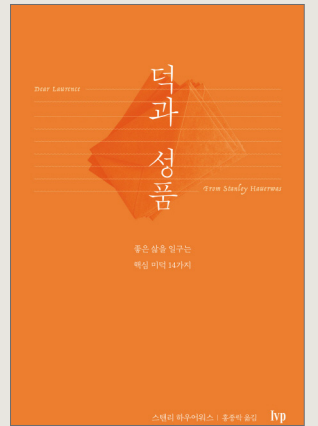
2월 9일 둘째 날 오전과 2월 10일(주일) 오후(본당 나사렛성전) 2차에 걸쳐 이성재 목사(은양 한울고등학교 교목)가 '교사와 학생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교육'이란 주제로 비전을 제시했다. 이 목사는 열정을 회복하는 대화, 다름, 언어, 문화의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사가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대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성경을 전하는 언어의 전문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분한 장로(영어교육 위원장)는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교사가 영적으로 깨어 관심과 기도로 먼저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3개월 된 영아도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통해 예배자로 성장하듯 자녀를 통해 부부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유선례 장로(유년교육 위원장)는 "교회학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 [덕과 성품]

스탠리 하우어워스 지음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godparent)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친구로부터 그의 아들 대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대자 로리의 세례 기념일마다 그 나이에 적합한 '덕'을 다루며 쓴 편지를 모은 책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중요한 덕 열네 가지를 매년 한 가지씩 다루면서 성장기 아이의 성품 형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인다. 자비로 시작한 첫 번째 편지는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은 겸손과 유머, 절제, 너그러움,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 성품에서 스탠리는 성품이 좋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스탠리의 사상과 성찰이 압축적으로 담긴 이 책은, 좋은 삶을 고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윤리학적 안내서다.

#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 되새기는 시간

청장년부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오픈 세미나, 2월 17일(주일) 광림사회봉사관에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과 영성 강조  
젊은 부부가 주축이 된 광림교회 청장년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는 비전 아래 '믿음과 삶'이란 주제로 믿음과 삶(가정, 교회, 일터, 개인)의 통합과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올해는 '일터'를 다루면서 세상 문화와 구별된 성경이 말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일터의 영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FWIA(Faith & Work Institute Asia)와 협력하고 있다.

2월 17일 오후 1시 10분~2시 30분에는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김윤희 박사(FWIA 대표)와 함께 '일과 영성과의 관계

는?(창 2:15)이라는 제목으로 광림의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특강이 열렸다. 김윤희 박사는 "영성이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일용직의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 외국인과 고아가 불공평한 관정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나와 있다. 약덕 고용주와 같이 품삯을 주지 않으려 해서 안 되며, 모두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란 것이다. 영성이 사회와 분리되어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기적이며 영성이 아닌 것이다. 하나

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에 관심을 갖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장년부는 일터에 대한 성경적 공부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일과 영성>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오는 3월 9일~4월 20일까지 7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열린다.

특히 <일과 영성>은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재해석하여 섬기고 사랑하도록, 성경적 원리 안에서 진실한 나눔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FWIA에서 제공하는 교재와 강의 토대로 일, 돈, 성공, 관계, 윤리 등 일터에서 적용하기 좋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정과 일터, 교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될 것이다.

일시: 3월 9일~4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문의: 청장년부 010-2237-0406

박상익 전도사(청장년부)



###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켄 시게마츠 지음

저자는 일본계 캐나다인으로, 도쿄에서 세계적인 기업 '소니'(Sony)를 다닐 때 끝없이 밀려오는 일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자신의 삶이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는 갑작스럽게 떠난 아일랜드 순례 여행에서 옛 수도원적 영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후 성경 속 지혜자들을 비롯해 성 베네딕토 규율까지, 자신의 삶에 영적 질서를 더해줄 개인적인 생활 수칙들을 탐구해 실천하기 시작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연구원 02-2056-5730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

- 목회현장 -



천원석 목사(1선교구)

작은 곳과 작은 것의 행복을 가지있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작은 곳과 작은 것의 행복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생의 삶에 '처음의 시간'인 결혼과 출생의 시간, 또한 첫 번째 돌과 개업, 이사, 사업장 예배 등 처음 맞이하는 시간에 어김없이 목회자로 함께하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과 장례를 인도하며 육체가 흠과 한 줌의 재로 아름다운 세상의 소품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엄숙한 시간, 깊은 슬픔의 순간 함께 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한 가정의 '처음 걸음'을 걷는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셔서 잔치의 자리에 더 큰 기쁨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분명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첫 걸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 가난한 가정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1:25-26)

예수님은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그곳을 부활의 영광 된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과 걸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야, 너는 빛이 될 거야!”

- 광림남교회 -



<새학기 기도회>, 다니엘서로 말씀 선포 광림남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2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2019년 새학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새학기 기도회의 주제는 “아이야, 너는 빛이 될 거야!”입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3대를 본받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광림남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한 광림남교회 교육국 김대영 목사님은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하여 선택, 지혜, 경영, 인내, 기준, 비전이라는 여섯 개의 키워드를 통해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공동의 기도 시간을 통해 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각 부서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며, 특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속한 그 교육기관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림남교회 새학기 기도회의 특별한 점은 가족사진 촬영과 간식 나눔입니다. 기도회 시간을 전후로 하여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 함께 예쁜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회 후에는 매일 부서별로 담당을 정해 토스트와 음료를 준비하여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올해는 이른 시간에 미리 계란을 준

비해주시어 한층 더 풍성해진 메뉴로 간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에는 <안수기도회>로 아이들의 첫 걸음을 축복하였습니다. 광림남교회 세 분의 목사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고 축복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미리 기도제목을 쓰고 준비하며 한 주의 기도회를 가졌고 마지막 날에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남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도록 계속 격려해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범 전도사(광림남교회)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가족 정착과 양육 돕기

- 2019 새가족위원회 교육 및 기도회 -

“새가족 위원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묻는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혜롭게 영접하며 새가족 정착과 양육을 도와야 한다.”

전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2월 10일~3월 10일까지 새가족실에서 5주간 주일마다 각 교구 새가족위원 45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교육과 토론, 성령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새가족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양육 방법, 자세, 사례들을 통해 위원들이 훈련된 양육자로 세워지기 위한 교육이다. 첫날 정준수 기획목사는 ‘구원과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새가족 위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이며, 경건한 마음과 말씀 사모,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묻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혜롭게 영접하며 새가족의 정착과 양육을 도와야 한다”며 네 가지 영적원리를 전했다. 둘째 주에는 강명옥 강사로부터 새가족 양



육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해 십자가 능력으로 헌신해야 한다며 양육 사례를 나누었다. 2월 24일과 3월 3일 주일은 한정희 사모로부터 새가족 양육 방법을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된다. 해당 교구 속회를 통한 양육 경험 사례와 어떤 자세로 새가족을 대해야 하는지 실제적 경험을 전한다. 마지막 3월 10일 주일은 새가족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손병규 목사의 강의로 이어진다. 새가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가족 위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며, 해당 교구 담당 목사, 전도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한상국 장로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성화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가족 위원들이 훈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관계성을 깊이 갖고 소통하며 영적 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양육담당, 교육담당으로 나누어 각 선교구 목사, 교구 전도사, 선교회와 연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새가족 정착으로 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 ‘미얀마’와 ‘이스라엘’에 뿌린 복음의 씨앗

〈2019 청년부 해외단기선교〉 2월 1일~22일까지 진행



미얀마 선교



미얀마 선교



미얀마 선교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선교

광림청년부의 〈2019년 해외 단기선교〉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얀마와 이스라엘, 필리핀, 파라과이에서 진행되었다. 〈백백만 해외 100교회 건축〉의 비전을 품고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열정을 쏟았다.

**불교국가 미얀마에 ‘시영교회’ 봉헌**  
전 국민의 87%가 불교를 믿으며, 미국무부 지정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인 미얀마에 광림의 청년들은 3번째 교회를 세웠다. 2월 1(금)~2월 9일(토), 최형순 전도사를 포함한 10명의 팀원들은 미얀마를 방문하여 ‘시영교회’(해외 100교회 건축 53번째 교회)를 봉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청년들은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휩쓸려 생업과 예배처소를 잃은 주민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왔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주민들의 모습은 역으로 청년들에게 큰 도전

을 주었다. 또 민단과 바간, 양곤 지역의 교회와 고아원, 공부방 등을 돌며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지역 아이들을 섬겼다. 조지연 청년은 “선교는 준비된 자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며 너무 큰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사는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다른 곳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하나님에 주신 사명**  
지난 2월 2일(토)~10일(주일), 선교사를 포함한 12명의 이스라엘 선교 팀은 땅 끝을 향한 복음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인 예루살렘에 첫발을 내딛었다. ‘정탐’이라는 주제로 처음 도전에 나선 청년들은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일정, 후원물품 하나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선교의 여정이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었지

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받았던 즉각적인 기도 응답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했다. 팀원들은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예루살렘과 나사렛, 갈릴리, 텔아비브, 하이파 지역에서 노방전도를 하였고, 헤브리대학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예루살렘 벤예후다 지역에서 버스킹(거리찬양사역)을 진행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기도를 하는 청년들도 만났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약 850만 명) 중 74%가 유대교도이며 기독교인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을 정탐한 12명의 광림 청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호 2편에서는 필리핀, 파라과이 선교를 소개한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신앙 간증

### 믿음은 주님 전하는 작은 한걸음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 7:7-8)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제 믿음과 삶 속에서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이스라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성지였지만, 어느 도시와 같이 바쁘고 아픔과 상처 많은 사람들의 집이었고, 세상 재물을 쌓아 두는 이들의 일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관광지가 되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찬양 중 천군만마를 보내시거나, 성경 속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

다.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여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에 싸워 이긴 적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이 유일한 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욘 8:7)는 말씀처럼, 작고 사소한 한걸음부터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찬양 한 곡,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심히 창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좇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걸으라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리디아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수고를, 그리고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고 심히 창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계셨습니다. 본당 예배에서, 호렙산기도회에서 뜨겁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언제나 일하시고 함께하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전할 테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온 백성이 주님의 힘 입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동욱 성도(청년부)

## 세상의 빛이 되는 〈광림장학금〉에 동참을!



광림교회 장학위원회는 1998년부터 배움에 열정이 있고, 교회와 한국사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 육성을 위해 해마다 두 차례 장학생을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고등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폐지하였고, 대학생으로만 장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국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장학생 종류는 <성적우수 장학생>, <봉사

우수 장학생>,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으로 세가지이다. 모든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학교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적우수 장학생은 교구 목사와 전도사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봉사우수 장학생은 교육국과 청년부의 추천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신청자 53명 중 37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성적우수, 봉사우수는 150만원, 목회자자녀는 200만원씩 총 6,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매번 지급되는 장학금은 전액 광림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김정석 담임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장학위원에서는 <매월 1만원 장학헌금>, <개인명의 기념 장학금>, <기업후원 장학금>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고, 교구 장학위원들의 헌금으로 장학제도 확대에 큰힘이 되고 있다.

<일만원 장학헌금>은 자녀 이름이나 손주 이름으로 하면 부담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 감사헌금봉투 팔호 안에 ‘장학’으로 기재하고 헌금하면 전액 장학금으로 계정되며, 주보헌금영수기에 특별헌금Ⅲ(장학)으로 표기된다. 이동호 장로(장학위원회 위원장)는 “광림의 장학생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한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낼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게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봄학기 <광림장학금> 수여식은 3월 3일 주일 저녁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 앞장선 기독교인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구하며, 나라 사랑으로 목숨 바친 신앙 선조들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정치문제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족의 고난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민족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며, 성경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감리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애국운동이었으며, 민족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출한 범애국적 운동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구성원 8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지난 호에 이어 3.1운동 중심에 섰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석구 (1875.5.3. ~ 1950.10.10.)

####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참여, 신사참배 거부



33세 때 개성 남부감리교회에서 미국선교사 왕영덕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서울 서대문 밖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서 3년간 수학하고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붙잡혀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신석구 목사는 재판 도중 조선인의 행복과 자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조선사람으로서(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해도 그러한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피고는 조선의 국민성을 잃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조선독립을 계획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였다. 광복 후 1949년에는 진남포에서 반동비밀결사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는 죄목으로 피검,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공산군에게 총살당하였다.

### 2. 신홍식 (1872.3.1. ~ 1937)

#### 민족대표 33인, 평양 남산현교회 독립선언식 감리교 측 만세운동 주도



충청북도 청주 출생, 1913년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회 목사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1917년 평양남산현교회에 부임하여 교육사업에 정진하였다. 1919년 2월 평양의 기흥병원에서 동지규합을 위하여 평양에 온 이인환으로부터 3.1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2월 20일 이인환의 집에서 오화영 등 동지와 모여 서울과 각 지방에서 동지를 모아 일본정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하고, 기독교측 대표 16명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하였다. 28일 밤에는 서울 재동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만나 이튿날 거행될 독립선언에 따른 최종협의를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의 태화관에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잡힌 채포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목회활동을 통해 청년운동, 농촌운동 등 사회 계몽운동으로 민족운동을 실현했으며,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였다.

### 3. 이필주 (1870. 1. 13. ~ 1942. 4. 21.)

#### 감리교 목사,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참여



이필주는 감리교회의 목사로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군인 출신이었던 이필주는 상동교회 내 상동청년학원과 공옥학교의 체육선생으로 채용되어 청소년 지도훈련을 하였고, YMCA 체육교사직을 맡다 이상재와도 친분을 갖게 되었다. 배재학교 이사이며 정동교회 담임목사였던 이필주 목사는 집에서 배재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의 3.1운동 동원 및 운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때 학생단은 3월 1일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방도를 모색해 갔다. 이를 통해 3.1운동 확산을 위해 학생단을 지도해 갔다. 3월 1일 독립선언 이후 자신은 감옥에 가더라도 이후 전개될 독립운동 구도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 4. 유관순 (1902.12.16. ~ 1920.9.28.)

#### 학생들과 종교계 중심으로 3.1운동 발판 마련



유관순은 1902년 3월 5일 천안군 병천면 용두리의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유중권은 사재를 털어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유관순은 감리교 선교사인 사부인(Mrs. Alice H. Shap)의 소개로 감리교 미션스쿨인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화학당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문회를 중심으로 오후 3시만 되면 모두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 기도와 시국토론회 및 외부인사 초청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유관순도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서거하자 학생들은 자신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으며, 2월 28일에는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학생들은 파고다공원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고등과 1학년인 유관순은 서명학·김복순·김희자·국현숙 등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결성, 소복을 하고 기숙사를 빠져나와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

하는 시위 행렬에 합류하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은 13일 기차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과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내놓으며 병천시장에서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상의하였다. 유관순과 사촌 언니 유예도는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조인원·유중권·유중무 등과 함께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하여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유관순은 주도자로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된 친오빠 유우석을 만나기도 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이신애, 어윤희 등과 함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18세로 순국하였다. “여러분! 조선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 5. 어윤희 (1877.6.20. ~ 1961.11.18.)

#### 개성 호수돈여학교 만세운동 주도



1880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힌 뒤 16세에 결혼하였으나, 3일만에 남편이 동학군에 참여하였다가 죽어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다. 30세에 우연히 개성 북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독교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개성 미리홍여학교에 입학, 졸업 후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낙도 주민의 전도와 독립정신 고취에 힘썼다. 1919년 2월 26일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후 예배당 지하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후 개성 일대에 배포해 개성 만세운동의 불씨를 제공, 3월 3일에는 1,5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 재소자들과 함께 다시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유관순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내며, 금식기도를 한다며 자신의 음식을 유관순에게 먹이곤 했다. 출옥한 뒤에도 여선교회를 조직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권총 탄환을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광복 뒤에는 개성에서 유린보육원을 설립해 고아들을 돌보았고, 6·25전쟁 때에는 부산으로 가서 10년간 교회 장로로 일하면서 사회사업에 전념하였다. 이후 서울에서 서

강유린보육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1961년 11월 사망했다. 1953년 플로렌스나이트िंग에 일기장, 1959년 인권옹호 공로표창을 받았고,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6. 윤형숙 (1900.9.13. ~ 1950.9.28.)

#### 남도의 유관순, 여수제일교회 전도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알려진 윤형숙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서 출생하였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거행된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선두에 서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헌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떨어진 팔에서 태극기를 주워 다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비분강개하여 더욱 격렬하게 항거했다.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이 구금되었으며, 윤형숙도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4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고문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기도 했다. 이후 출소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전라북도 고창으로 내려왔다. 고창 유치원에서 6년간 강사를 하였고, 여수봉산교회와 여수제일교회,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중 8.15 해방을 맞았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잡혀 손양원 목사와 함께 인민군들 총에 죽음을 당했다.

### 7. 스코필드 (1889.3.15. ~ 1970.4.12.)

#### 3.1운동 사진 촬영, 외국인 유일 3.1운동 협력



스코필드는 석호필이라는 한국명을 가진 영국 태생의 캐나다인 선교사로, 1916년 우리나라에 와서 세브란스의전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스코필드는 만세시위현장을 찍어 3.1운동의 실상을 사진과 함께 해외에 알렸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3·1운동 초기의 몇 안 되는 사진들은 모두 그가 찍은 것이다. 스코필드는 일본인 고관들을 찾아가 항의하고, 언론에 투고하여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참혹한 학살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세계에 널리 알렸다. 1920년 일제는 그를 캐나다로 추방해버렸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대한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1956년 해방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 구제,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했다. 1970년 4월 12일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81세의 나이로 영면한 그는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권순정 목사(목회연구원)